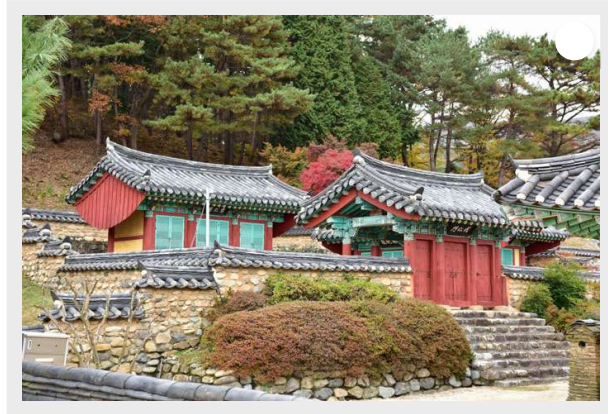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 고구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다

미상 ~ 458년(자비 마립간 1)



박제상 유적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은 신라의 제19대 왕이다. 고구려의 지원 덕에 실성마립간(實聖麻立干)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기간 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고구려의 남하정책이 본격화되자, 백제와 나제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장자의 왕위계승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왕위계승의 혼란을 막고,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

2 눌지마립간의 가계와 즉위 과정

눌지마립간은 내지왕(內只王)이라고도 한다.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의 아들로, 성은 김(金), 이름은 눌지(訥祗)이다. 어머니는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의 딸인 보반부인(保反夫人) 김씨인데, 다른 말로 내례희부인(內禮希夫人)이라고도 한다. 왕비는 실성마립간의 딸 김씨이다. 자식으로는 왕위를 계승한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과, 지증왕(智證王)을 낳은 조생부인(鳥生夫人) 김씨가 있다. 417년 즉위하여 458년까지 41년간 신라를 다스렸다. 신라에서 시호제(諡號制)가 성립되기 이전이라 별도의 시호는 없고, 이름을 따서 눌지마립간이라 불린다. 황남대총(皇南大塚) 남분이 눌지마립간의 능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을 내물마립간의 능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눌지마립간의 즉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물마립간과 실성마립간 시기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의 활약으로 백제가 세력을 떨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와 신라는 우호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광개토왕(廣開土王, 391~412)의 등장으로 양국의 관계는 고구려가 주도하게 되었다. 광개토왕은 연달아 백제를 공격하며 남쪽을 압박했고, 이런 상황에서 신라에 사자를 보내 인질을 요구했다. 그러자 내물마립간은 왕족인 실성(實聖)을 볼모로 보냈다. 실성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미추이사금의 아우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가 392년(내물마립간 37) 1월이었다.

이후 실성은 9년이 지나서야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사이 광개토왕은 신라에 쳐들어온 왜